

“학부모도 교육주체!”

‘인천시교육청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대표 등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시·도교육청 워크숍 참가

‘인천시교육청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대표자 5명은 시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주최로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개최된 전국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학부모 및 교육청 업무 담당자, 교과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과부 담당관은 교육정책 추진 방향을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학부모 활동의 발전과정과 현황,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은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지원위원이며 동국대 석좌교수인 조벽 교수의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이뤄진 강연과 7개 시·도 학부모동아리 대표의 우수사례 발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논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7개 시·도 사례발표시간에는 인천의 인수초교 인수사랑 봉사단 박영자 대표가 나와 발표했다.

인수사랑 봉사단은 지난 3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인 ‘인수사랑 봉사단’으로 출발하여 활동하였고 지난 8월 인천시교육청의 자원봉사 동아리 모집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된 이후, 예산지원을 받아 봉사활동을 왕성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올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의 수은주를 기록한 행사 당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저녁 늦은 시간 인천에 도착한 학부모 자원봉사 대표 5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뜻깊고 의미있는 동아리 활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피력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동아리 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8월 24일 공모를 통해 단위학교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동아리 19개를 공모·선정하였으며 현재 모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 바자회 마지막 즈음 임원들과 내내 이날을 기억하기 위해 함께 자리했다.

불우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

지식의 환원, 엄선된 ‘봉사’의 장으로...

지난 18일 부천 프리존 컨벤션 웨딩홀에서는 불우청소년 장학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부천여성교육봉사회(회장 허지자)의 주관·주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떡과 차, 과일, 해물전, 막걸리 등 푸짐하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됐으며 일일 찻집과 함께 유자차, 화과자, 미역, 말치기 오가는 작거래도 함께 진행됐다.

전날부터 시작된 바자회 준비를

시작으로 당일 봉사를 진행한 임원진 30여명은 각자의 위치에서 장소 제공과 당일 손님맞이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방문한 370여명의 손님 중 다수는 전현직 교육계의 인사들로서 청소년 장학금 지급과 교육봉사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유지훈 경기도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과거 교육계를 이끌어 온 분들이며 교육에 대한 노하우로 ‘엄선된 봉

사’를 하고 있다”면서 더욱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바자회에 모인 수익금은 행사 준비 비용을 제외한 모두 부천지역 초등학교 20여명의 교복과 학용품 등 불우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부천여성교육봉사회 허지자 회장은 스피커를 통해 “당장 지구 멸망이 온다 해도 교육에 대한 봉사는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신의 전공을 살린 작은 봉사도 항상 마지막인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다. 나아가 각 학교장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이해도 부탁했다.

부천여성교육봉사회(회장 허지자)는 2007년 2월 2일 창립되었으며 현재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교육봉사공동체이다.

회원들은 자신의 전공이나 역할을 살린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자체연수, 외부 봉사강의 및 개인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서울 동미중, 음악치료 그룹활동 진행

서울 동미중학교(교장 백종성)에서는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학교’ 사업의 하나로 지난 12월14일부터 23일까지 각 학년별로 10명씩 총 30명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그룹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음악치료 그룹활동은 학교 생활에 소극적인 학생들에게 자기의 장점을 찾고 깨닫도록 이끌어 주며 긍정적인 자세를 길러주고 사회성과 자기표현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문 음악치료사를 초빙해 열린 이번 활동은 음악정원사, 음악양타자 등 여러 가지 주제를 즉흥음악으로 표현해보기, 음악퀴즈 및 드림씨클(그룹리듬연주) 등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측은 처음에는 표정도 없고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며,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게임형식의 ‘음악퀴즈’ 활동을 통해 호기심을 나타내고 약기를 만지며 흥미를 느끼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또 여러 약기를 함께 다루면서 그룹 안에서 자기의 소속감을 느끼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는 이번 음악 그룹활동이 학생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빠, 아빠가 참 좋아요~”

경기도 광명 소하초, ‘좋은 아버지 모임’



◆ 광명소하초등학교의 좋은 아버지 모임.

소하초등학교(교장 최백란)에서는 아버지들이 주체가 된 모임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3월 설립, 4월 학부모 연수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52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좋은 아버지 모임’은 아버지들이 주체가 되어 매주 소하초 학생들과 만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서로 교감을 나누고

교내 보수가 필요한 곳, 어렵거나 소외된 학생을 도와 주는 등 두루 다양하고 뜻 있는 일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에서 13일, 난지도 캠프장에서 바둑씨메타기, 연날리기, 가족간의 게임, 식사준비 등 1박2일로 펼쳐진 가족캠프 활동은 9가족 32명이 한 자리에 모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

다. 2학년의 한 학생은 “아빠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함께 놀아주시니 참 좋아요!”라며 활짝 웃었다.

그날 자리에 함께한 최백란 교장은 “학교 곳곳을 책임지는 따뜻한 손길에 감사하다. 우리학교에 아버지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는 이렇게 활발한 모임이 생겨 뿌듯하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좋은 아버지 모임’의 황기평 회장과 참석 회원들은 “2009학년도에 이어 2010학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 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한편, 소하초등학교는 먹그림 활동으로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명품 교육프로그램 평가 우수학교’ 인증을 받은바 있다.

최백란 교장은 “다가오는 2010학년도 학사달력을 학생들 대상의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먹그림을 수록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월별 학교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배포·홍보하면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만족도 높은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kny@eduyonhap.com

대학 신입생모집 과장광고 주의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7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많은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광고 유형을 예시하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 취업률 관련 광고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으로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에는 그 순위가 하락했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교과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는 취업률 1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년간 연속해 취업률이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이다.

고객과 함께 하는 사업 파트너로서 늘 곁에 있겠습니다

01 프렌칭 파트너의 역할

- 각종 사무기기의 유지보수 및 A/S
- 전산소모품 및 복사용지류 판매
- 핵심인력

02 조달담당 파트너의 역할

- 각종 특별실의 전산호달담당
- 프로덕트 및 영상기기, 음향 설비공사
- 전자발판, 문서세탁기

03 불용품 처리 파트너의 역할

- 고달물품의 불용처리 일체담당
- 각종 서류 처리까지 일괄히 해결

불용처리 및 중고인쇄물 판매 수거사업은 고객의 기존 장비수출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자폐기물의 수출입 제약을 위한 재활용 가능성인 국내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에 부족하고 폐기물처리 수거물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대한 최적인 재활용률을 통해 부족한 내수의 자원을 절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